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당산나무		
활동목표	당산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무등산 당산나무의 의미 되새기기.		
해설주제	당산나무는 누가 언제 심었을까?		
해설재료	-	소요시간(')	21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1.만남	- 무등산국립공원	5분	-
주제 해설	2.당산나무란	- 현황 - 당산나무의 의미, 가치	10분	-
	3.무등산의 당산나무	- 당산제 - 무등산 당산나무를 보호합시다.	3분	-
	4. 송풍정	- 송풍정의 유래 - 송풍정 보리밥집 - 반보기 이야기	5분	-
	정리	5. 마무리	- 마무리	3분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당산나무는 누가 언제 심었을까?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만남	<p>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등산에 대해 알려줄 일일 선생님!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오기 정말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날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기대해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대답유도) 네, 좋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무등산은 어떤 산인지 간단히 소개 해 드릴게요.</p> <p>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21개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이곳, 무등산은 2013년 3월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지 아시는 분?(답변유도) 네, 무등산은 ‘없을 무’,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밖에도 무등산국립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주상절리대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렇게 아름다운 무등산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지면 안되겠죠?(답변유도) 네, 여러분들은 잘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이제 곧 해설을 시작 할텐데요, 그 전에 국립공원 내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p> <p>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쓰레기 투기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음식물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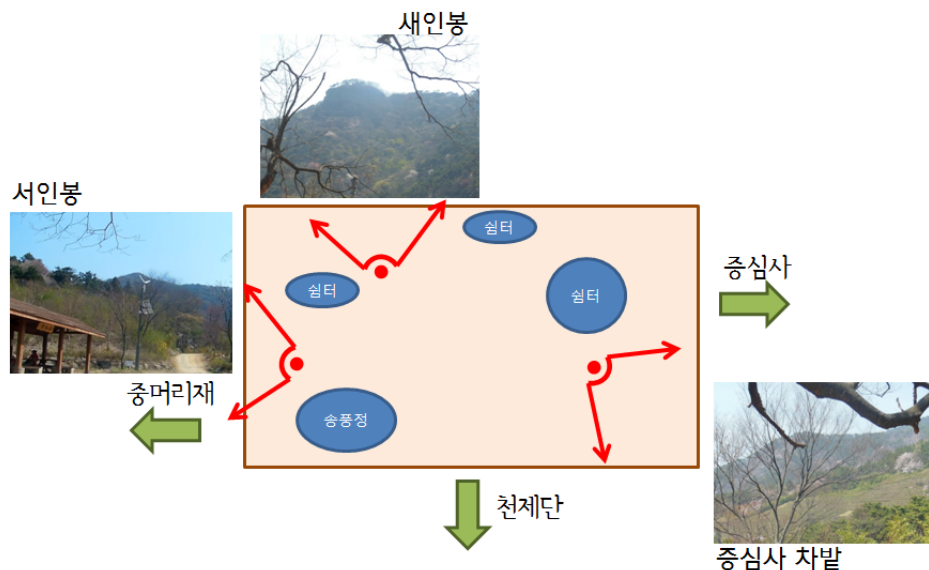
	<p>나 과일껍질은 거름이 되니 버려도 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하지만 국립공원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이러한 부산물들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하니, 가지고 오셨던 모든 쓰레기들은 되가져 가져야 합니 다. 그밖에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흡연, 취사, 애완 동물 입장, 자연훼손 등 의견정리) 맞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아셨으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으로 안전입니다. 놀러왔다가 다치시면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저 희도 속상하겠죠?(답변유도) 숲에서는 땅밖으로 자란 나무뿌리나 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한발한발 잘 보고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 상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정연하게 움직여 주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개별적인 자유시간은 중간중간 드릴테니 이동 중에는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2.당산나무란?</p>	<p>여러분, 제 뒤에 큰 나무가 보이시죠? 저 나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요?(대답유도) 이 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둘레 만도 5M나 돼서 광주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p> <p>이 지역 사람들은 예부터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은 당산나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대답유도) 네, 당산나무는 마을 지킴이로서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신격화된 나무로 ‘신 목’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감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같은 교목이 활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무 밑에 돌로 된 제단을 두거나 나무 옆 에 작은 사당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 돌 제단이 놓여있죠? 만일 이 신목을 베거나 해치면 큰 재앙을 입게 되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죽을 경우 마을전체가 큰 화를 입는다는 믿 음이 있었다고 합니다.</p> <p>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당산나무는 누가, 언제 심은 나무인가요?”</p> <p>네, 이렇게 언제나 크고 푸를 것만 같은 당산나무도 누군가가 묘목 일 때 심은 나무겠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산나무는 일반적으로 마을 이 세워질 당시에 심어진다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에 마을</p>

	<p>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마을에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서 ‘신목’으로 가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산나무는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온 것이며 기쁨과 슬픔을 마을과 함께 겪은 존재입니다.</p>
<p>3. 무등산의 당산 나무</p>	<p>무등산의 이 당산나무도 무등산과 지역주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역사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보름날 광주시민이 복 받고 평안하기를 제사지냅니다. 당산제는 영·호남지역에서 행해지는 마을 제사로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입니다. 당산굿, 동제, 당제 라고도 부릅니다.</p> <p>당산나무는 이렇게 신성시 여겨지는 나무지만 제를 지낼 때만 금줄을 두르고, 제가 끝나면 당수나무에 줄을 걸어 그네를 뛰기도 하고 여름에는 일꾼들이 낮잠을 자는 휴식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쉼터의 대상으로도 변하는 것이죠.</p> <p>하지만 너무 친숙한 공간으로 변한 나머지 무등산의 당산나무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쉼터의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산나무는 지역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신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당산나무의 본래의 의미를 아셨으니 당산나무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되겠죠? 이렇게 크고 울창한 나무도 사람들에게 밟히고 닳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주세요.</p> <p>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저기 보이는 정자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4. 송풍정</p>	<p>다른 지역의 당산나무와는 달리 무등산의 당산나무는 마을이 아닌 산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시는 당산나무 주변에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곳, ‘송풍정’이라는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화순 주민들이 광주 읍성으로 가는 중간지점의 나들목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느티나무가 솔바람(송풍)을 맞으며 쉬어가는 나그네들의 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풍정’이라 이름붙인 것이죠.</p> <p>아직도 광주사람들 중 많은분들이 송풍정 하면 보리밥집을 떠올리십니다. 이곳에 당산나무 그늘아래 송풍정이라는 보리밥집이 있었다고</p>

합니다. 전국최초의 보리밥집으로, 80년대부터 있었던 꽤 소문난 맛 집이었답니다. 전라남도에는 이런 고갯길에 예부터 보리밥집이 많았습니다. 무등산만 해도 잣고개와 중거리재도 보리밥집이 있었는데 이러한 쉼터에서 사람들이 ‘반보기’로 만나 보리밥쌈을 먹으며 쉬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보기’란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중간거리에 이정표를 정해놓고 1년에 한번 씩 만나던 풍습입니다. ‘중로보기’라고도 한답니다. 이 지방 여인네들이 시집살이의 설움을 달래던 묘책이었는데 대개 7월 백중쯤 느티나무 그늘에서 만났던 기록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래 깊은 음식점들이 사라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에게 조금씩 양보해야겠죠?(대답유도)

5. 마무리



자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쪽에는 새인봉, 그 좌측에는 서인봉,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중심사 차밭이 보이죠? 무등산의 중요지점들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경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은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네, 중머리재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서석대까지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어디든 이곳 당산나무에서 좋은 기운만 받아가셔서, 남은 산행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